● 선진국에 크게 밑도는 우리나라의 장기 기증률

○ 지난 4월 장기기증 확산을 위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에 대해 뇌사추정자 통보와 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가족이나 유족의 동의 요건을 기존 '선순위 2인의 서면동의'에서 '선순위자 1인의 서면동의'로 완화했다. 가족들이 반대하더라도 뇌사자 본인이 원했을 경우에는 장기이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신고 뇌사자수에 비례해 뇌사 기증자의 규모도 증가해 이식 대기 환자들의 대기시간 단축과 함께 대기 중 사망, 해외원정 이식 등의 문제도 함께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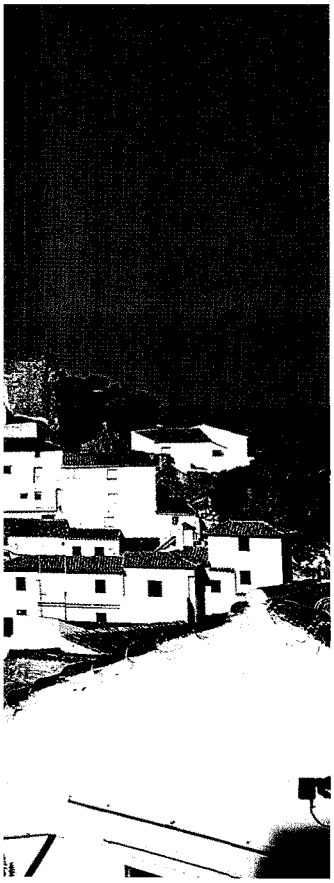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장기 이식 대기자는 작년 말 기준 1만 7천 명에 이르지만 뇌사자 기증자는 261명에 불과하다. 인구 100만 명당 뇌사 기증자의 수는 3.1명(2007년 기준)으로 스페인 34.3명, 프랑스 25.3명을 크게 밑돈다. 스페인 국민은 장기이식 대기시간이 평균 70여일이지만, 한국인은 평균 2년을 기다려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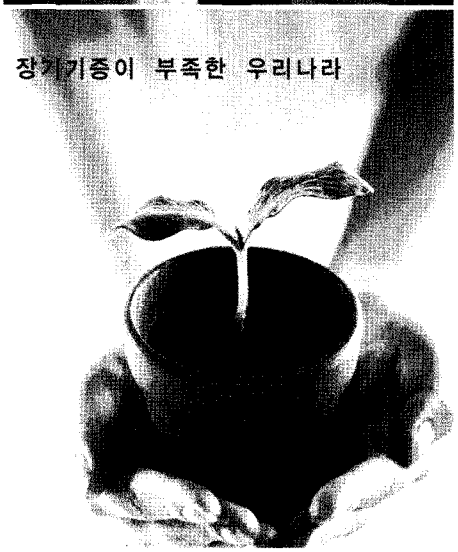
우리나라에서는 간 이식의 3분의 2가 살아있는 사람의 간을 나누는 '생체 이식'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뇌사자 장기기증이 드물기 때문이다. 반면 선진국은 전체 간이식 수술 중 90%가 뇌사자 간 이식이다.

장기 기증율이 높은 나라들의 공통점은 장기기증 절차가 매우 간단하다는 것이다. 캐나다 퀘벡주의 경우 건강보험증에 장기기증 서명란에 기입하면 된다. 미국, 영국, 호주에서는 운전면허증을 교부 받을 때 '장기기증 의사표시제도'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프랑스는 법률에 '생전에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다면 기증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는 '옵트아웃(opt-out) 시스템을 명시해 놓았다. 오스트리아, 아르헨티나 등도 묵시적 동의 방식을 택하고 있다.

● 세계 최고 스페인은 코디네이터제도 활용

○ 뇌사자 장기기증 세계 1위인 스페인은 전 세계에서 장기이식이 가장 성공적으로 이뤄지는 나라다. 프랑스와 오스트리아, 아르헨티나와 마찬가지로 '옵트아웃'(opt-out)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는데, 주목할 점은 간호사가 아닌 의사가 장기 이식 코디네이터를 맡고 있다는 사실이다.





세계 최고의 장기 기증률, 스페인에서 배우다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장기기증이 부족한 우리나라

우리나라 장기기증자는 선진국과 비교해 크게 부족하다. 이로 인해 실낱같은 희망을 걸고 장기이식 순서를 기다리는 대기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장기기증은 간이나 신장질환자의 치료에 투입되는 엄청난 의료비용을 줄여준다. 생명나눔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 감소에도 기여하는 것이다. 외국의 장기기증 현황을 알아봄으로써 국내 적용 가능성을 점쳐보고자 한다.

글 김원학(의학전문기자)

전국 170개 병원의 중환자실에는 코디네이터를 한 명 이상 의무적으로 배치해 뇌사 가능성이 높은 환자를 조기에 파악하고, 연명 치료가 한계에 부딪혔을 때 빨리 장기기증 설득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스페인의 장기 기증률이 처음부터 높았던 것은 아니다. 1980년대만 해도 유럽 내에서도 중하위권 수준이었다. 그러나 장기기증의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 1989년 문을 연 국립장기이식센터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단 몇 년 사이에 스페인의 장기기증이 유럽의 선두로 부상했다.

스페인에서는 사망자가 기증에 동의를 하는 경우, 장기 및 신체조직 모두의 기증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생전에 기증의사를 언급하지 않은 사망자의 경우에는 유가족이 그 결정을 하게 되는데 코디네이터가 기재하고 유가족이 서명하는 동의서 양식을 보면 기본적으로 장기 및 신체조직 전체의 기증을 전제로 한다. 일부 국가들에서 장기기증 동의와 신체조직기증 동의를 따로 묻는 것과 그 방법이 반대라고 볼 수 있다.

스페인이 장기기증의 모델이 된 데에는 전문적인 코디네이터의 양성과 그에 따른 통계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다. 장기기증에 대한 사회의 긍정적인 태도를 고취시키기 위한 핵심은 대중교육을 꼽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에 대한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이로 인해 스페인의 국민들은 자연스럽게 모두 받을 권리가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모두 줄 의무가 있다는 사고를 갖고 있다.

● 사회지도층 장기기증 캠페인 앞장 서야

○ 지난해 2월 김수환 추기경이 선종하면서 장기기증이 크게 늘어났다. 지난해 1월부터 12월초까지 전국 병원과 공인 장기기증 등록단체에 장기기증을 희망한 서약자는 장기기증운동이 시작된 이래 최고규모인 17만 7,063명으로 집계됐다. 실제 선진국의 장기기증이 활성화 될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는 지도층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이다.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은 간이식이 필요한 어린이를 위해 장기 기증을 호소한 적이 있으며, 영국의 블레어 총리 부부는 장기기증등록을 함으로써 영국 내 장기 기증운동을 활성화시켰고, 장기기증을 권유 하는 TV캠페인 홍보에도 앞장섰다.